

# 대학가 원룸 골목 쓰레기 '몸살'

## 전신주 옆 등 곳곳에 수북히 쌓여 수거 안돼 악취... 주민들과 마찰도

광주지역 대학가 주변 원룸 일대 골목길에 '쓰레기장' (?)으로 전락했다. 일부 학생들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섞어 버리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내다버리면서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악취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웃 간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인 C원룸 앞 골목길. 전신주 옆에는 1kg 짜리 검은색 봉투 8개가 널려 있었다. 그 안에 김치와 생선뼈, 과일껍질,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C원룸 앞길 100여m를 따라가자 골목길은 빈병·종이상자·연탄재·폐형광등·컴퓨터·책상 등 각종 불법쓰레기로 가득했다.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검은색 봉투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다른 대학가 원룸밀집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날 오후 1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C원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다.

주민 2명이 쓰레기 더미를 풀어서 집 뒤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구분. 집에서 가져온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주부 김모(42·북구 용봉동)씨는 "방학 때면 불법쓰레기가 더 늘어 난다. 주민들이 나무랄 때도 있지만 그때 뿐"이라며 "관할 구청에선 불법쓰레기라고 수거도 해가지 않고 '올머겨자떡기식'으로 직접 치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은 모두 40건. 하지만 관할 구청도 쓰레기 수거 또는 감시용 CCTV 설치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이웃 간 잦은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로 사는 원룸 일대 골목길에 불법쓰레기가 많은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곤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포상금제도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무단 투기로 적발되면



쓰레기장? 1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골목길에 인근 원룸에 사는 학생 등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전신주 옆에 가득 쌓여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

기 적발건수는 289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1천819만 원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내주부터 장마

### 어제 광주 31.7도 올 최고

21일부터 전남지역 일부 도서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중·북부 지방에서 발달해 동진하는 저기압 전선과 서쪽으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형성된 장마전선이 휴일인 21일부터 여주시와 안도군에 속한 전남 일부 도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당분간 머물면서 주기적으로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에 앞서 19일 밤부터 중국 북부와 중부에서 각각 형성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과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20일에는 이 저기압이 북동진해 북한 지방을 지나가면서 동반한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서해안과 서울, 경기 중북부 일부 지방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17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1.7도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9분 달돋이 01시 12분 달질 14시 53분

**따뜻할 송골 송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끼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20/32℃
목포	구름 조금	19/27℃
여수	흐린뒤 맑음	19/24℃
완도	구름 조금	17/27℃
구례	구름 조금	18/31℃
해남	구름 조금	17/27℃
장흥	구름 조금	17/27℃
고흥	구름 조금	18/26℃
순천	구름 조금	19/28℃
영광	구름 조금	18/29℃
진도	흐린뒤 맑음	17/27℃
전주	맑은뒤 흐림	19/32℃
남원	맑은뒤 흐림	17/31℃
속산도	흐린뒤 맑음	18/2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09:24	02:46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여수 04:33	10:57
			17:32	23:36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0/31	21/26	21/27	21/28	20/30	20/3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대학은 학사 02-605-1114 / 대학은 02-605-1115

# '사교육 없는 학교' 53곳 신청

### 전체 5% 수준... 광주 15·전남 20개교 선정 7월부터 운영

## 학교당 1억원 안팎 지원

광주·전남지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53곳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신청 접수 결과, 광주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2곳 등 24곳이, 전남은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0곳 등 모두 29곳이 신청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가 각 294곳

과 752곳 등 모두 1천46곳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5% 수준이다.

사업 취지와는 달리 신청률이 미미한 것은 ▲갑작스런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부족 ▲학교의 화합력 우려 ▲대도시 위주 선정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겠다는 것으로, 학교당 평균 1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된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각 16억 8천만원과 24억 7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로 방과후 학교의 외부 강사 인건비 등으로 총당될 전망이다.

예산은 고려해 광주는 15곳, 전남은 20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양시·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는 달리 사교육 성행지역 말고도 사실상 사교육 해택에서 제외된 변두리나 농어촌 지역 학교 등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두암보건지소 개소

### 각종 측정 장비 등 갖춰

광주시 북구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문을 연다. 북구는 19일 오후 4시 북구 두암동 두암보건지소에서 송광은 북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두암·종학·문화·석곡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두암보건지소는 28억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연면적 986.1㎡)로 지난해 7월 초 착공한 지 11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1층 측정실에는 혈압 등 각종 측정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2층엔 초음파 치료기와 안마의자 등 통합 치료실이 마련됐다. 3층엔 알코올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정신보건센터가 갖춰졌다.

/이종행 기자 galee@

# 해수욕장 등 15곳 "수상레저 금지"

### 목포·완도해경, 피서객 안전위해 단속

올 여름 피서철 전남 서남해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고 싶다면 금지구역이 어딘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은 17일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과 일반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모두 15곳을 하계 피서철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목포해경은 목포 외담도를 비롯해 신안 임자 대광, 무안 홀통과 톱머리, 영광 가마미, 진도 가계와 금갑, 관매도 해수욕장, 진도대교 수로 등 9곳을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완도해경도 완도 신지 명사십리와 해남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 등 6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해

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금지구역 설정은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150m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이상규기자 lsh@

## 수능 모의평가 문제 또 복수정답

지난 4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항심사 결과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출제 오류가 또다시 발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

과 직업탐구 영역 프로그래밍 과목의 13번은 복수 정답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3번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온 좌표값(x, y)을 해독 절차에 따라 적용,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로, 평가원은 애초 ②번 '금수강산'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주어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나오는 좌표값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문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②번 외에 ①번 '대한민국'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본 수능시험과 지난해 6월 모의평가, 11월 치러진 2009학년도 본 수능에서도 일부 문항에서 복수 정답 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연합뉴스

**(주)알고코리아 국산 디지털 보청기**

**강남 사육 준공 기념 특가 할인 판매**

보청기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사업 "약용 보청형 디지털 보청기" 연구개발 결과물

모델명	기능	가격
AL-100	자동음량조정,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1,200,000원
AL-200	자동음량조정,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원격조정	1,500,000원
AL-300	자동음량조정,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원격조정, 음성인식	1,800,000원
AL-400	자동음량조정,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원격조정, 음성인식, AI 처리	2,100,000원
AL-500	자동음량조정,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원격조정, 음성인식, AI 처리, 무선충전	2,400,000원

알고코리아 대표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11층 (02-538-5522)

문의: 02-538-5522, 070-7582-9111, 010-9005-1950

수원점: 031-840-7359, 대구점: 052-230-7707, 목포점: 070-8223-6120, 부산점: 010-9933-6923